

보도시점 2026. 5. 29.(금) 14:00 배포 2026. 5. 29.(금) 13:30

「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」 제7차 회의 개최

- 3.30일~5.27일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 22.7조원(체결기준)
- 국고실장, “6월 WGBI 자금 유입을 위해 철저히 준비할 것”

재정경제부는 황순관 국고실장 주재로 '26.5.29.(금) 10:00 정부서울청사에서 「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*」 제7차 회의를 개최하였다. 이번 회의에서 관계기관들은 WGBI 편입개시 이후 외국인 자금 유입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.

* 참석기관: 재정경제부(반장: 국고실장), 금융위원회,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, 예탁결제원

WGBI 편입개시 이후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는 체결기준 22.7조원(3.30일~5.27일), 결제기준 18.0조원(4.1일~5.27일)*으로, 최근 중동전쟁,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전환 가능성 등 대내외 요인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음에도 4월에 이어 5월에도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다. 특히 WGBI 편입 영향으로 일본계(6.0조원, 결제기준) 등 신규투자자가 유입되며 전년 동기간('25.1~5월, 32.8조원) 대비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가 확대('26.1~5월, 36.3조원)되고, 장기보유 성향의 연기금·중앙은행 등의 투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.

* 채권의 경우 거래체결일과 결제일 간 시차가 존재(당일~최대 30일)하여, 거래 체결 기준과 결제 기준간 차이 발생

**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(조원): (체결기준) 4월 +10.0, 5월 +12.7 (결제기준) 4월 +8.8, 5월 +9.2

황 국고실장은 “지난 4월과 5월 두 달간 외국인 자금은 상당한 규모로 유입되고 있다”고 평가하며, “일본계 등 새로운 투자자의 유입은 투자자 기반 확대와 중장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”이라고 언급했다. 다만, 황 국고실장은 “최근 국고채 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, 6월에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외국인 자금 유입 동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 아울러 “이러한 엄중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채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달라”고 강조했다.

정부는 앞으로도 「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」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, 외국인 투자자 대상 IR을 지속함으로써 투자자와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.

재정경제부 <총괄>	국고실 국채시장과	책임자	과 장	이재우 (044-215-5140)
		담당자	사무관	박종민 (pymwm@korea.kr)
금융위원회	금융국 금융시장분석과	책임자	과 장	이인욱 (02-2100-2856)
		담당자	사무관	김경찬 (kimkchant@korea.kr)
한국은행	국제국 자본이동분석팀	책임자	팀 장	최재혁 (02-759-5773)
		담당자	과 장	임준혁 (jh.lim@bok.or.kr)
금융감독원	자본시장감독국 증권거래감독팀	책임자	팀 장	박세혁 (02-3145-7590)
		담당자	조사역	박기택 (pkt@fss.or.kr)
한국에탁결제원	글로벌본부 글로벌금융부	책임자	부 장	최순돈 (051-519-1815)
		담당자	팀 장	최극진 (kjchoi@ksd.or.kr)

